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경영저널

Hot Issue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통한 메타버스축제의 변화
공공요금 생활폐기물 수수료
시사in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커버스토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지자체가 뛴다 '대구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짓는다
기업탐방 ITSCO 아이티스코
이달의 대경인 SK(주) C&C 조재관 제조Digital부문장 인터뷰
Economy 글로벌 환율전쟁과 한국경제
칭찬합시다 영천시의 민원해결사 홍장군, 환경보호과 홍경아 팀장

65TH
2024 10

www.KEPI.or.kr
80
60
40
2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KEPI
한 | 기 | 연

contents | www.경영저널com October 2024 10

06 **청호(靑浩)칼럼**
최저임금 문제보다 표준임금제

08 **경영평가**
경영실적 보고서

10 **공공요금 진단**
생활폐기물 수수료

12 **법과 제도**
정보통신부분 시중 노임 단가

14 **커버스토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20 **지자체가 뛴다**
대구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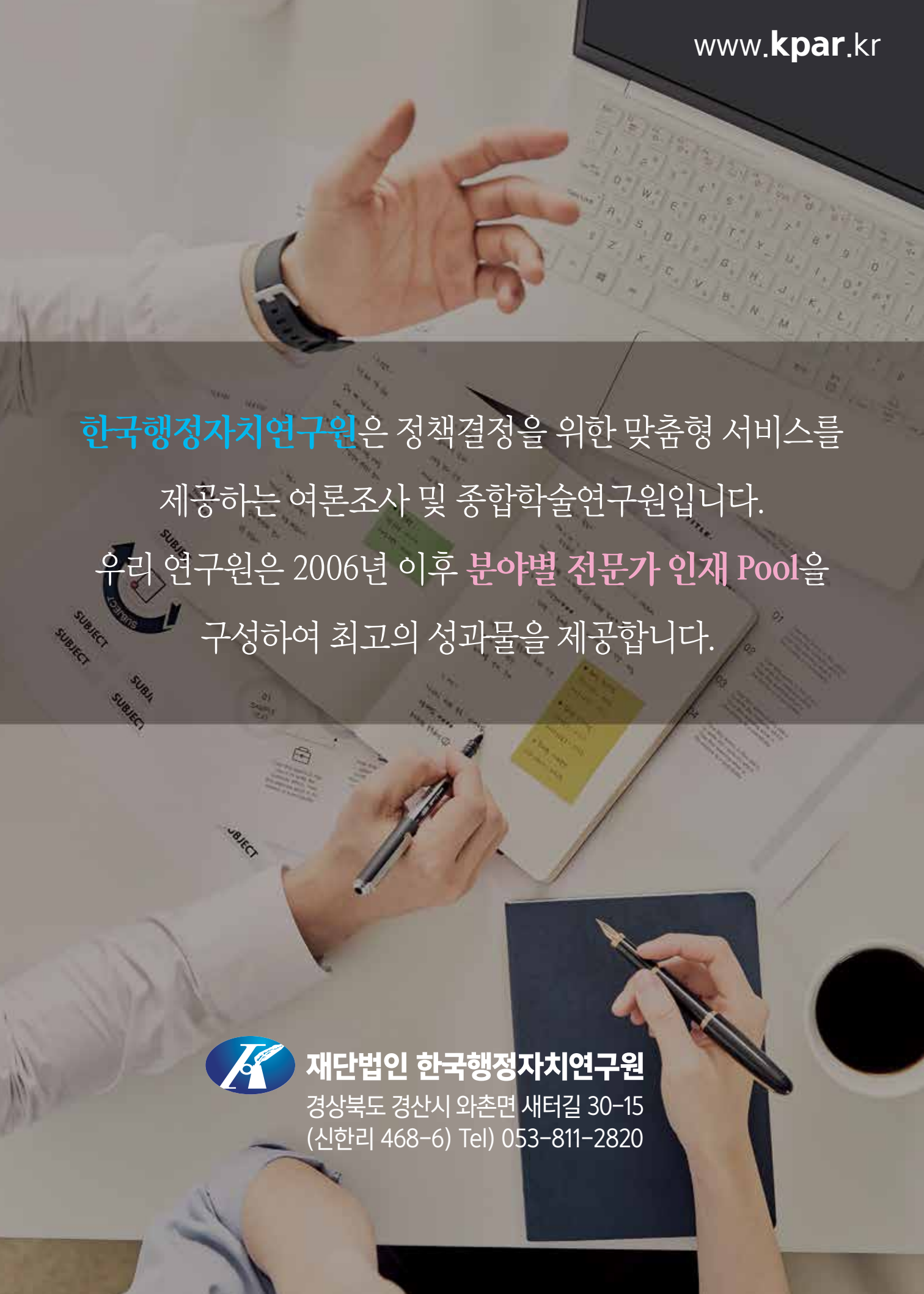
22 **중구청 산업**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 활성화

24 **음식명가**
비법조리에 솜씨 좋은 주방장의 손맛과 정성이 더한 산 한정식

26 **근대골목투어 기행story**
동산·청라언덕-3·1만세운동-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고택

30 **Hot issue**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통한 메타버스축제의 변화

32 **Economy**
글로벌 환율전쟁과 한국경제


www.kpar.kr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종합학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과물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contents | www.경영저널com October 2024 10

34 **지역정가 소식**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전문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38 **칭찬합시다**
영천시의 민원해결사 홍장군, 환경보호과 홍경아 팀장

40 **이달의 대경인**
SK(주) C&C 조재관 제조Digital부문장 인터뷰

42 **기업탐방**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술 솔루션 전문기업
"ITSCO 아이티스코"

44 **축제 및 관광 story**
대구 경북 축제

48 **시사in**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50 **대구 경북 단신**
가을철 복합문화공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53 **경영평가사 기사**
경영 전문가 '경영평가사' 자격 취득 시험 개최

54 **한국경제기획 연구원 연구 우수사례**
경로당 운영실태분석 연구용역

경영저널 YOUTUBE

경영저널 통권 제64호

발행인	이진구
편집국장	김문철
편집위원	조대영, 윤일형, 박균익, 김용우
취재	김원현, 오상원, 이가윤, 이경윤
사진	신영민
편집디자인	김수영
디자인·인쇄	워커스 대표 김정석
발행처	http://www.경영저널.com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산. 라 00011
창간	2007년 11월 5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9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100,000원
정가	10,000원
예금주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은행 225-12-003611
	농협은행 301-0258-049101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 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bmjglobal999@gmail.com
전화: 053)766-1368~9 FAX)766-0379

최저임금 문제보다 표준임금제

표준임금의 격차, 시급한 과제

우리나라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만 몰두하면서 2025년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등을 외면한 결정으로 실체적 구체성이 없는 획일적 평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저임금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산업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표준임금 차이다.
표준임금의 격차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노동시장 왜곡,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회적 국가적 불평등

현대자동차는 23년 기준, 평균연봉은 1억 1,700만원으로, 토요타 8,000만원, GM 1억1천만원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다.
애국심으로 가득 찬 우리 국민들 이지만, 현재는 찻값 인상 불안과 사회적 불공평 등 부정적 인식으로 현대자동차를 외면하고 외제 차를 선호하게 된다.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 차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으로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신규공무원 24% 퇴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 공무원들이 작년 한 해에 1만 3천명이 퇴직했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금융권은 물론, 대기업에 비해 2~3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신규임용 공무원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퇴직하고 있으며, 퇴직비율은 2019년 17%에서 2023년 24%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보수에 대한 현실화뿐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없는 북유럽 복지국가

우리의 현실과 차이는 있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임금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국가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대신 산업별 집단적 임금협상을 통하여 동일한 산업 내에서 임금 등을 보장한다.
북유럽 정부는 포괄적인 복지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산업의 기업을 동등하게 대하지만, 대기업 등에 높은 세금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장적(우리나라의 4대보험) 세금 등을 감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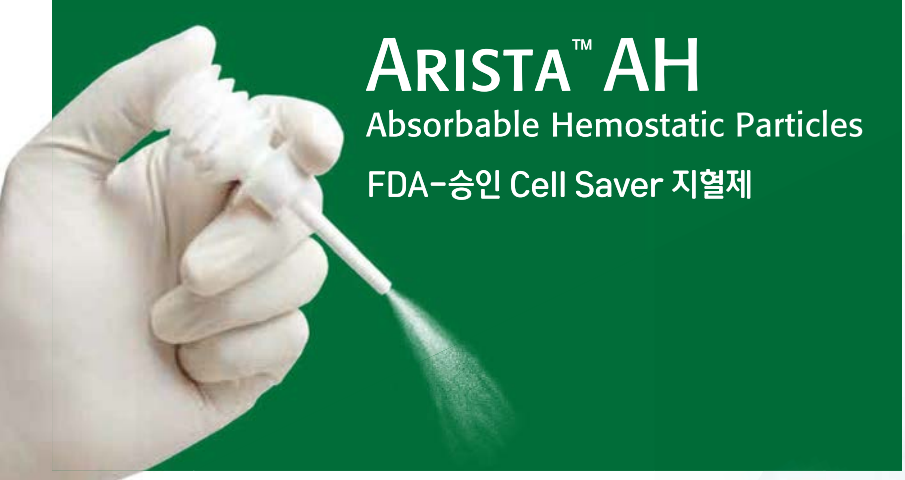
대기업과 임금 2배이상 차이 나

우리나라 표준임금은 산별, 직종별, 성별, 그리고 연령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격차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며, 이러한 임금의 차이는 사기저하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중소기업의 표준임금은 대기업과 2배 이상 차이로 결혼기피, 저출생, 그리고 지역 불균형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2년 기준, 「소기업(5~9인)은 대기업(300인이상)의 54%이며, 중기업(100~299인)의 임금은 대기업의 71% 수준」인 것으로 밝혔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대기업근로자는 월 591만원(세전기준)인데 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286만원으로 305만원의 소득격차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복지수준도 많은 차이가 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강국, 소득재분배

우리나라는 OECD 32개중 대기업비율이 14%로 가장 낮으며, 중소기업의 강국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를 벤치마킹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소득재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은 대기업 비중이 41%, 영국 46%, 프랑스 47%, 그리고 미국은 58%로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다.
고용노동부 발표(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은 2만 4,409원,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시간당 약 71%의 임금격차가 난다」고 밝혔다.

이진구
대표이사·발행인



ARISTA™ AH

Absorbable Hemostatic Particles

FDA-승인 Cell Saver 지혈제

독자적 MPH™ 기술: 지혈을 위한 고유한 접근법

ARISTA™ AH의 힘은 고유한 MPH™ (Microporous Polysaccharide Hemospheres)기술에 있습니다. 일정한 미세 다공성 입자로 이루어진 분자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한 삼투압 작용으로 출혈 부위 접촉 시 혈액을 탈수시키고 겔화하여 자연적인 응고 과정을 형성합니다.

빠른 지혈. 빠른 흡수.

ARISTA™ AH는 혈액과 접촉하면 안정된 응고 형성을 시작합니다. MPH™ 입자는 혈소판, 적혈구 및 혈액 단백질과 같은 혈액 고형물을 농축하여 겔화 매트릭스를 형성합니다.
추가 출혈에 대한 장벽을 제공하여 환자의 응고 상태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응고 과정을 형성합니다.[4]
일부 제품들과 달리, ARISTA™ AH는 적용 후 24~48시간[3] 내에 체내로 쉽게 흡수됩니다.

특허
- 국내 (등록) 제10-1837055호
- 미국 (출원) 16/643,598
- 중국 (출원) 2018800598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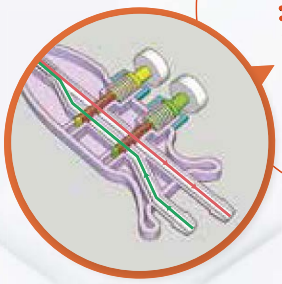
제원

전 체 길 이	62.2cm
프로브 길이	38.0cm
프로브 직경	0.5cm
손잡이 높이	6.7cm

01 테프론 절연코팅 프로브

- 절연 효과
- 환자 안전도 향상

특장점
Feature point



02 흡인라인 직선화

- 이중관 단일면 구조
- 우수한 흡인력

03 인체공학적 디자인

- 그립감 향상
- 사용자 피로도 감소

Dolphin-SIS

Laparoscopic Suction Irrigation System

MEDION
A BETTER LIFE PARTNER
Simple and Easy medical device

(주)메디온

다수의료기기 대구경북총판
제품제조시부터 병원과 협약 제품출시
메디온만의 의료기기 토탈솔루션

Tel.070.7617.5359 Fax.050.4050.5359 E-mail. jwmedion@naver.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94, 4층

경영실적 보고서

경영실적 보고서의 작성

매년 3월이면 국가 기관들의 보고서가 마무리되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보고팀들에게는 매년 3월이 연말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영실적보고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획재정부의 기준이 바뀔 때마다 그 형식과 가중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은 기업 경영평가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여러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담부서가 없이 필요시에만 TF팀을 구성하거나, 순환근무로 실적보고서 작성하는 담당이 바뀌거나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실적보고의 중요성

◇의사결정 지원

경영실적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영업 실적,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진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향후 전략 수립이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된다.

◇투명성 제고

경영실적보고서는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과 평가 및 개선

경영진은 실적보고서를 통해 특정기간 동안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향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

기업은 법적으로 경영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장 기업의 경우 경영실적보고서는 주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규제 당국의 검토를 받는다.

◇미래 계획 수립

경영실적보고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를 통해 향후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강화 방안

경영보고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및 의사결정 지원에 매우 중요자료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무 및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
- 데이터 분석 툴 활용: Excel, Google Sheets뿐만 아니라 Python, R 같은 고급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통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 재무 분석 능력 강화: 재무제표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BEP), 투자 수익률(ROI) 등의 재무 지표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 사고와 구조화된 보고서 작성 스킬
보고서의 체계적 구조 마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도입, 본문, 결론을 명확히 나누고 각 섹션에 적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보고서 구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 사고력 강화: 보고서 작성 시 각 데이터와 정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사고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경영진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효과적인 시각화 능력
보고서 작성 시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차트,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 자료는 정보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Tableau, Power BI, Google Data Studio 같은 시각화 툴을 활용해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강화
보고서는 다양한 부서의 데이터와 의견을 종합해 작성

되기 때문에 팀 내 소통과 협업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진, 주주,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정기적인 교육 및 피드백
재무 분석,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경영진 및 동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드백은 작성자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간 관리 및 집중력 강화
보고서 작성은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보고서를 더 신속하게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

경영실적 보고서의 시사점

경영보고서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데이터 분석, 논리적 사고, 시각화,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경영실적보고서는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조대영 연구위원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건정성 확보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RFID 개별 종량기기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2016년 이후 동결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판매가격을 2024년 7월 1일부터 3L는 기존 100원 → 120원으로 20원 인상, 5L는 기존 150원 → 180원으로 30원 인상, 10L는 기존 290원 → 340원으로 50원 인상, 20L는 560원 → 670원으로 110원 인상, 30L는 기존 850원 → 1,080원으로 230원 인상, 50L는 기존 1,400원 → 1,660원으로 260원 인상, 75L는 기존 2,080원 → 2,470원으로 390원 인상되었다.

칠곡군은 2022년 7월부터 3개년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판매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인상된 가격은 3L는 기존 90원 → 110원으로 20원 인상, 5L는 기존 130원 → 160원으로 30원 인상, 10L는 기존 240원 → 300원으로 60원 인상, 20L는 470원 → 600원으로 130원 인상, 50L는 기존 1,190원 → 1,480원으로 290원 인상, 75L는 기존 1,780원 → 2,210원으로 430원 인상되었다.

반면 서울시는 2017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을 약 10% 인상된 후 현재까지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김천시 또한 2006년에 16.3%인 주민부담율을 25%로 8.7%로 부담률을 높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표

(단위: 원)

지역	종류							비고
	3L	5L	10L	20L	30L	50L	75L	
서울 (가정용 기준)	-	130	250	490	740	1,250	1,880	17. 1월
대구 (군위군 제외)	120	180	340	670	1,080	1,660	2,470	24. 7월부터 인상
칠곡	110	160	300	600	-	1,480	2,210	24. 7월부터 인상
김천	70	100	180	350	-	860	1,270	06. 7월

※ 출처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및 RFID 가격표

(단위: 원)

지역	종류						비고
	2L	3L	5L	20L	120L	RFID(kg)	
서울	190	300	500	2,000	12,000	130	17. 1월
대구 (군위군 제외)	110	170	290	1,160	6,960	68	24. 7월부터 인상
지역			30L	60L	120L	RFID(kg)	
칠곡	-	-	900	1,800	3,600	60	24. 7월부터 인상
김천	-	-	150	600	3,600	35	06. 7월

※ 출처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오상원 연구원

정보통신부분 시중 노임 단가

올해 하반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부문 11개 직종의 평균 시중노임단가가 상반기 대비 약 2.24% 상승한 35만3333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단가 공표 내용을 안내했다.

직종별 공표 노임을 살펴보면, 광케이블설치사가 45만5593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2.58% 증가한 것이다. 이어 S/W시험사 44만4532원, 통신케이블공 42만3830원, 통신외선공 39만7952원 순으로 노임단가가 높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통신관련기사로,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는 상반기 대비 약 3.27% 오른 31만5804원이다. 이어 통신내선공(27만5107원) 2.93%, 통신설비공(30만5050원) 2.75%, 통신외선공 2.73% 순으로 인상률이 높다.

이 밖에, H/W시험사 38만1052원, 무선안테나공 34만7927원, 통신관련산업기사 29만6036원, 통신관련기능사 24만3776원 등이다.

한편 시중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는 2024년 5월 전국 2000개 건설현장에서 지급한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노임에 대한 조사는 2024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으며, 9월 1일자로 공표됐다. 적용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윤일형 이사

번호	직종명 \ 공표일	2024.9.1	2024.1.1	2023.9.1	2023.1.1
1086	통신내선공	275,107	267,277	263,371	251,790
1087	통신설비공	305,050	296,882	293,037	280,506
1088	통신외선공	397,952	387,376	380,953	363,102
1089	통신케이블공	423,830	414,944	407,575	389,536
1090	무선안테나공	347,927	339,642	334,429	319,190
*1091	석면해체공	203,469	196,351	202,830	198,675
2001	광케이블설치사	455,593	444,142	430,849	409,726
*2002	H/W시험사	381,052	375,020	364,183	354,947
*2003	S/W시험사	444,532	433,747	423,318	401,195
5001	통신관련기사	315,804	305,806	305,033	292,454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96,036	294,019	292,400	284,281
5003	통신관련기능사	243,776	242,587	240,768	234,222
5004	전기공사기사	322,514	316,876	314,544	299,140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287,871	281,837	281,158	265,465
5006	변전전공	474,414	458,700	451,145	437,936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2024 대구중구 청년의날

Since 2022

10.11.(금) - 10.12.(토) 동성로 일원

팝업체험

전시

부대행사

포차

이벤트

대구 청년들 모두 모여라!

중구에서 청년하다

초청가수 '래원'

청년NIGHT 'DJ LAYL'

[무대 프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16:00 ~ 17:00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17:00 ~ 17:30	버스킹공연	버스킹공연
17:30 ~ 18:00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18:30 ~ 19:00	개막식	청년노래방
19:00 ~ 20:30	청년노래방	버스킹공연
20:30 ~ 21:30	레크리에이션	**초청공연 '래원'**
21:30 ~ 22:00	버스킹공연	**청년 NIGHT**

[부스 프로그램]

시간	구분(프로그램)	
14:00 ~ 22:00	청년사진전	전시·대형포토존
14:00 ~ 22:00	체험/팝업	팝업 및 체험부스
14:00 ~ 22:00	키덜트존	각 구간별로 다른 컨셉의 컨텐츠가 있는 청년놀이터
14:00 ~ 22:00 16:00 ~ 22:00	청년포차	푸드트럭 주류판매

대구광역시 중구

| 인터뷰 |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Profile

1956년 06월 12일 안동 출생
2022년 07월~ : 민선8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현)
2018년 07월~2022년 06월 : 민선7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17년 ~ 2018년 06월 : 15대 후반기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2016년 ~ 현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이사
2016년 ~ 2018년 06월 : 7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2008년 ~ 2010년 : 5대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2006년 ~ 2008년 : 5대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2004년 ~ 2006년 : 4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1998년 ~ 2000년 : 3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994년 ~ 1998년 : 대구광역시 중구 약사회 회장

1979년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1975년 대구 대건고등학교
1972년 대구 대륜중학교
1969년 삼덕초등학교

수필집 「약국 아저씨의 열정과 도전」

소통과 섬김의 구정 추진과 중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류규하 중구청장

동성로와 서문시장이라는 지역 양대 상권을 보유한 대구 중구는 대구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이면서도 옛 대구읍성이 자리했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흐르는 도시이다.

민선 8기 전반기 재개발·재건축 등 48개소에 달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 대구 중구는 올해 2월 20여 년만에 인구 9만명 회복과 2년 연속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 순 유입률 1위를 달성하였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주인구 10만명 돌파를 바라보고 있어 대구의 중심이자 원도심에서 힘찬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공약사업으로 6개 분야,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를 슬로건으로 지역에서 시민 모두가 살기 좋고 살아보고 싶은 행복도시 중구를 건설하는데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류규하 중구청장님을 만나 구정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주요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대구 중구는 원도심의 노후된 주거환경과 도심 공동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 생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등 보육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어르신 사회활동참여 확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 중구 보훈회관 건립 등 전세대에 걸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2년 연속 인구 순 유입률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지난 2월에는 20여년 만에 인구 9만명을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 대구 중구」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품관광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국내·외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명품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먼저, 구)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야외무대를 재정비해 새롭게 탄생한 「동성로28아트스퀘어」는 버스킹을 비

롯한 각종 축제와 공연이 365일 펼쳐지는 동성로의 명소로 발돋음했으며,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공연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공연이 없을때에는 관광객에게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 다채로운 영상을 표출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대구 읍성의 모습과 그 역사를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영상관을 약령시 내 읍성어울마당 2층에 개관했고, 경상감영공원에는 특색있는 미디어파사드와 조명으로 야간 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해 야간에도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 건축물인 이일우 고택은 교육·전시관 및 관광안내소로 리모델링해 「우현하늘마당」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구 대표 관광 상품인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코스에 추가함으로써 근대골목투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관광상품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활력 넘치는 대구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구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인데, 어떤 것인가?

A 중구는 아무래도 터잡고 있는 위치가 낙후된 원도심에 있다보니, 기존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도시가 팽창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주차문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상권 침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영주차장 확충, 그리고 동성로 르네상스를 기치로 하는 관광특구 지정 등과 같이, 고질적으로 원도심으로서 중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금 트랜드에 맞는 거주지 정주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 때 인구 7만 선도 위태로울 지경으로 급격한 정주인구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지난 2년 연속으로 인구순유입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2월에는 20여년 만에 인구 9만명을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 대구 중구」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Q 현재 중구의 최대 과제인 구정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중구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늘어나는 정주 인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8기 전반기를 중구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지는 시간으로 채웠다면 남은 후반기는 그동안 쌓은 토대 위에 「살기 좋은 도시, 대구 중구」를 케치프레이즈로 삼고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늘어나는 정주인구에 대비해 남산동과 달성공원 정문, 침장골목 일원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43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고, 지역의 구·군 중에 최다인 1천390면의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는 등 교통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의 65세이상 노령층 인구가 2021년 15,600명에서 지난해 17,000명으로 수년 사이

9%나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에 발맞추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는 노인복지관,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공공키즈놀이복합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 복합 복지시설로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 지역 최초로 지난 6월 시니어스토어를 개소해 어르신들의 자립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즐거운 생활지원단」을 운영해 AI를 활용한 안부전화, 쉼 없이 복지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는 24시간 돌봄사업 등 중구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케어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서 나갈 생각입니다.

Q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 관광지인 동성로가 2019년 이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7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동성로 관광특구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가?

A 잘 아시다시피 대구하면 동성로를 떠올릴 정도로 동성로는 관광의 기본인 쇼핑과 숙박은 물론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 콘텐츠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광객들이 대구를 방문하면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로가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향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인프라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관광지로서 중구만의 매력을 높여 나간다면, 관련 분야의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도 한층 높아져 동성로 상권회복은 물론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특구 지정으로 관광진흥법상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등 관광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행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관광 편의시설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등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 동성로가 문화·예술·축제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 글로벌 명품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Q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A 아무래도 중구의 대표 관광상품인 「골목투어」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골목문화해설사를 추가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국어가 가능한 해설사를 적극 보강하고 재미있는 이벤트 진행도 가능한 예술 해설사도 별도로 양성해 「골목투어」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66년의 역사를 지닌 약령시의 체험 프로그램과 골목투어를 결합한 외국인 맞춤형 투어코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주말에만 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투어를 평일까지 확대하고, 동성로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설치해 관련 관광서비스 수요 증가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인프라 확대를 위해 특구 내 외국어가 병기된 관광표지판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달구벌대로와 국채보상로 등 간선도로에 배전함을 이용한 중구 관광 관련 광고를 새롭게 추진해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팸투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의료관광 SNS 메디커넥터를 양성해 온라인 채널과 SNS를 통한 의료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단체관광객 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Q 공약 이행 등 SA 등급,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공약 추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A 지난 5월 중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현재 민선 8기 61개 공약사업 중 32개 사업을 이행해 공약완료율은 57.4%(2024년 6월 기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공약 이행율 34.26%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로 특히 공약 추진과 관련해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약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이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온 그간의 노력들을 좋은 평가로 화답해 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구민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온 만큼 앞으로 남은 인기 동안에도 공약으로 내 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중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구청장님에게 대구 중구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는가?

A 중구에 어울리는 안성맞춤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붕없는 박물관」입니다.

이는 도로, 건물, 주택 등 생활인프라에 대한 원도심의 특성상 외연 확장성이 힘들었던 중구 입장에서 긴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해 온 중구의 발자취를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관광객 수요 감소 등 부침을 겪었지만, 지난해 '근대골목 밤마실'과 '서문시장 야시장'이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되었고,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와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문화자원과 도심의 잠재된 역사 및 골목투어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도심기능 회복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물론 볼거리·먹거리가 넘치는 다이나믹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한 말씀을 한다면?

A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라는 슬로건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중구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8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구는 구민 행복을 위한 관광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 명물 골목 활성화를 기반으로 중구가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살기 좋은 생활환경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침체된 원도심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행복도시, 살기좋은 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와 공직자 모두는 세상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발맞춰 가는 여세추이(與世推移)라는 고사성어처럼 배우고 연구하며 발전하는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현명함과 융통성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우리 중구의 내일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대구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짓는다.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조감도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시설인 중구 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교육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인동4가 405-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은 독립적인 북카페와 어린이공간, 이벤트 마당, 청소년 특화공간, 숲속 휴게공간, 강의실, 시청각실, 자료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해 개방감과 공간감을 살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보고회로 구립공공도서관 조성이 구체화 되었다"며 "도서관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은 총사업비 423억원으로, 지하 4층~지상 6층 약 12,200m² 규모로 오는 2026년 건립될 예정이다.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구의 독서, 평생교육, 여가 등의 수요를 충족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어날 인구에도 대비한 문화·교육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10월 착공 예정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투시도

대구 중구는 구 대봉도서관 부지에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한다.

본 사업은 대봉동 111번지 일원에 사업비 37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951m²,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진행된다. 반다비 체육센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와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공공키즈놀이터 등 사회복지 분야별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복합복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 키즈놀이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구민 복지 증진과 안전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난 7월,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는 오는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목표 완공 시기는 2026년 하반기로, 정식 개관은 2027년을 예상하고 있다.

중구청장은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원현 기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 활성화

음식과 쇼핑, 예술과 문화, 관광자원으로 가득찬 매력 넘치는 중구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음하려 한다.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 플랫폼' 제막

2024 대구 문화유산 야행

대구 대표 번화가인 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일원이 지난 7월 22일 대구에서는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고시되어 국비지원사업 추진 등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중구 계산오거리~서성네거리~태평네거리~대구역네거리~교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네거리~반월당네거리 안쪽 1.16km²에 이르는 지역이다.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관광자원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토대로 관광특구 지정신청자료 구축 및 관광진흥계획 완료 후 지난 4월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검토 조사·분석용역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체부로부터 협의 완료 통보를 받고 관광특구로 지정되게 된 것이다.

현재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에 34개소가 있으나, 대구는 그동안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어 이번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침체의 늪에 빠진 동성로 상권 부활을 위해 문화관광·상권·교통·도심 공간 4개 분야에서 변화·혁신을 도모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동성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지원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에서 공연도 가능해졌고, 최상급 호텔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실제 5성급 호텔인'신라스테이'건립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다.

중구청은 대구시와 함께 동성로 관광 편의시설 개선 사업 및 관광코스 개발 등 6개 분야 12개 단위 사업,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특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축제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동성로는 대구의 심장이자 젊은이의 성지로 앞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대 역사문화유산 관광 콘텐츠사업

동성로에는 역사관, 기념관 등 관광시설이 이어서 준공된다. 내년 1월 '이인성 아르스(ARS) 기념관'이 중구 제일교회 역사관 앞에 생길 예정이다.
아르스는 조선의 고갱이라 불리는 대구 근대화가 이인

동성로관광특구지정

성이 예술가들을 위해 만든 다방 이름이다.

그리고 올해 10월 삼덕교회 기념관 2층에 대구 형무소 역사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청라언덕과 내년 상반기에는 북성로에 각각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2일엔 동성로28 아트스케어 앞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CGV대구한일극장 옆에서는 관광특구 상징 기념물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동성로 일대에는 축하 행사가 진행되었고 상가와 약령시의 약령몰은 할인을, 향촌문화관과 스토리하우스는 무료 관람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성로 관광특구 진흥과 관광개발사업 추진

중구청에 따르면, 동성로 관광특구 진흥계획 목표는 '활력 있은 관광특구, 근대화가 조화로운 글로벌 쇼핑 관광지'다.
「관광 여건 개선」을 비롯해 「동성로만의 매력적인 콘텐츠 육성」,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연계지원 개발」, 「안전한 관광특구 조성」 등이 추진 방향으로 설정됐다.

외국인을 위한 관광편의 시설개선 분야 사업에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암서원 고택스테이 조성, ◇동성로 일대 aDRT 운행, ◇외국인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운영 등이 관광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추진된다.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사업에는 김광석길, 달성토성, 서문시장, 청라언덕과 묶인 사업들이 포함됐다.

중구청은 분야별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맞춤형 투어 코스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홍보를 위해 해외 전용엽서를 제작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구청은 지속적으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8년까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대의 관광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관광콘텐츠 개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에는 '나홀로','맞춤형'여행이 주목받고 있는 관광시장이 소규모화 및 파편화, 콘텐츠화, 맞춤화되며 새로운 관광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청라언덕, 약전골목, 패션주얼리특구, 한국전선문학관, 국채보상공원, 김광석거리 등을 연계하여 관광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중구만의 새로운 관광콘텐트를 연구·개발함으로써 관광특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큰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국

대구 중구, 일본 U12 도쿄 선발팀 대상 중구 의료관광 팸투어 실시 (이상화·서상돈 고택)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중구 남성로 53-1(남성로53-2)에 위치한 '산 한정식'이 그 영예를 안았다.

비법조리에 솜씨 좋은 주방장의 손맛과 주인장의 정성이 더해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는 "산 한정식"

동성로3가 81-2, 시내 동성로에서 약전골목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나면 전통한옥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채 고풍스럽고 포근한 느낌을 자아내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한옥이 있다.

한옥 창호의 이중미학을 바탕으로 느긋한 여유와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 한옥의 실내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아늑해 찾는 이가 마음의 평안함마저 느껴지는 곳, 백민서(76년생) 대표가 운영하는 「산 한정식」이다.

백대표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견지하며 20여 년 동안 한식에 매진해 왔다. 어머니께서 한정식을 오랫동안 운영한 것도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다.
현재의 산 한정식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고, 2020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연인들뿐만 아니라 잔치, 상견례, 단체모임 행사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고 있는 지역 대표 음식명가이다.

산 한정식의 대표 메뉴는 4가지 코스요리이다.
◇행복 품는 산, ◇미소가 가득한 산, ◇짝을 찾는 산, ◇젊음이 넘치는 산이다.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짝을 찾는 산」은 그 요리종류가 '전채요리'로 ◇계절샐러드, ◇궁중잡채, ◇오징어무침, ◇표고강정, ◇튀김만두, ◇소고기육전이고, '메인요리'로 ◇활전복숙회, ◇수제떡갈비, ◇삼선해물 누룽지탕, ◇크림새우, ◇사태장육, ◇장어튀김, ◇활전복버터구이, ◇궁중영양소갈비찜으로 구성된다. 식사로 코다리찜과 김치, 버섯볶음 등 4가지 기본반찬에 영양밥과 된장찌개가 제공되고, 후식으로 수제요거트가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수제떡갈비는 옛 궁중음식인 너비아니 양념을 응용하여 소고기에 약간의 돼지고기를 섞어 사과, 배, 꿀, 참기름을 버무려 12시간 숙성 후 손으로 직접 빚어낸 음식이다. 양손으로 수십 번을 쳐가며 점성을 높여 정성으로 모

양을 빚은 음식으로 찰기나 모양을 만들기 용이하게 다른 음식점과는 달리 빵가루나 전분가루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사태장육은 소사태부위 중 최상급인 아롱사태만을 선별하여 하루 동안 핏물을 제거한 후 한 번 삶아 불순물을 제거한다. 한방재료를 베이스로 한 번 더 삶아 실온에 반나절 숙성 후 얇게 썰어 특제소스에 절여 사포닌이 풍부한 새싹삼을 함께 곁들여 먹는다.

삼선해물 누룽지탕은 닭뼈와 닭살을 12시간 삶아 우려낸 육수를 삼선(새우, 오징어, 가리비)과 각종 야채를 웍으로 불맛을 내어서 볶아 육수를 첨가 후 찹쌀누룽지와 끓여낸다.

코다리찜은 코다리 손질 후 밀가루를 묻혀 튀겨 식힌 후 하루 동안의 숙성 후 고추장의 탁한 양념 대신 다데기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양념을 넣어 한 번 끓여 참기름을 두른 후 불을 끈다. 그리고 고춧가루가 퍼질 때까지 뜸을 들인 후 담아낸다.

영양밥은 일반미, 찹쌀, 찰흑미, 강낭콩, 완두콩, 좁쌀이 들어가 영양과 맛을 다잡고 있다.
된장찌개는 재래된장에 청국장을 비율에 맞게 넣어 끓이며, 조미료 대신 각종 야채와 멸치, 다시마 등을 넣어 끓인 기본 육수 베이스에 각종 야채를 갈아 넣어 만들어 개운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산 한정식의 모든 음식은 손질과 조리과정 및 숙성시간으로 한가지 음식을 접시에 담아내기까지는 3~4일이 걸린다.
어딜 가나 접하거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 볼 수 있지만, 조미료를 배제하고 좋은 식자재를 고집하는 천연재료, 그리고 조리기법과 숙성으로 정성을 쏟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산 한정식이다.
산 한정식의 모든 음식 하나하나가 간이 기가 막히게 딱 맞고, 그 맛이 깔끔하고 정갈하여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는 일품요리이다.

「젊음이 넘치는 산」 코스는 ◇능이버섯 숙회, ◇한우육회, ◇활장어구이, ◇새우선 등 추가요리로 풍성하게 제공된다. 평일 점심특선은 영양갈비찜 정식, 수제떡갈비 정식, 그리고 간단한 산 정식이 제공되어 가성비 좋은 메뉴로 손님들에게 인기이다.

한식에 매진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백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토종 글로벌 NGO 국내단체 굿네이버스를 통해 소중한 후원금으로 해외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백대표는 '작은 도움이지만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중구 대표 맛집으로도 선정된 백대표의 산 한정식은 한반도 백두대간에 드높이 뻗은 이름 난 명산들처럼 중구를 넘어 대구에서 오랫동안 우뚝 솟은 한정식명가로 영원히 자리할 것이다.

편집국

근대문화골목투어

대구 중구청은 '대구 중구 골목 투어'를 개발하여 대구의 근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 유적과 명소, 그리고 인물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골목의 이야기는 시대의 증언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값진 유산이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 골목 투어는 1코스는 대구근대역사관을 품은 경상감영달성길이고, 3코스는 주얼리타운과 서문시장에 이르는 패션한방길이다. 4코스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김광석길의 문화거리인 삼덕봉산문화길이고, 5코스는 성모당 등 천주교성지의 남산100년향수길이다.

오늘 기행story는 2코스를 소개하려 한다. 근대문화골목으로 동산·청라언덕-3·1만세운동-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고택/근대문화체험관계산예가-뽕나무골목-제일교회-에코한방체험관-약령시한의학박물관-영남대로-종로-진골목-화교협회로 이어진다.

청라언덕은 달성토성이 대구의 중심이었을 때 동쪽에 있다하여 동산으로도 불린 언덕이다.
20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담쟁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하였다.
아름다운 정원인 이곳은 스윗즈 주택과, 챔니스주택, 블레어주택 등 옛 선교사들이 생활했던 주택과 90계단, 3.1만세운동길, 대구 최초의 서양사과나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박태준 선생의 동무생각 노래비,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묘지인 은혜정원 등이 있다.

동산 대구제일교회에 보호수 수령 200여년 된 이팝나무는 고향생각의 작곡가 현제명의 이름을 따서 「현제명나무」라고 한다. 이팝나무꽃은 옛 시절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 보릿고개가 닥쳐올 때쯤 피던 꽃이다. 꽃송이가 사발에 얹힌 흰 쌀밥처럼 보여 「이밥나무」라 했으며, 이밥이 이팝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 유래가 재밌다.

청라언덕은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경관이 아름다워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3·1만세운동길은 제일교회 신관 왼편의 90계단으로부터 이어진 오르막길을 말한다.
1919년 3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이 대구에서도 일어났다. 그 역사적 현장 중 한 곳이 지금 동산에 있는

3·1만세운동길이다.
'대구의 몽마르뜨'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래서인가, 현진건 길이라고도 하는 3.1만세운동길은 대구 문화예술가들이 단골로 찾던 곳이다.

계산성당은 고딕양식의 성당으로 1911년에 주교좌성당이 되면서 종탑을 2배로 높이는 등 증축을 한 후, 1918년 12월 24일 지금이 모습을 갖추었다. 아름다운 외관 덕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등 유명인사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1922년 음력 5월 8일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난 김수환 추기경은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곳 계산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기도 했다. 천재화가 이인성의 작품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저항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서상돈이 생전에 머물렀던 집이다. 나라를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두 인물의 이야기가 고택 구석구석 깃들어 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는 2012년 4월에 개관했다. 대구 도심의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골목 투어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영상실과 한옥전시실,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다.

한국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상화·현진건·백기만, 근대 음악의 기틀을 다진 박태준·현제명·태호, 근대미술가로 유명한 서동진·이인성·이쾌대 등 대구와 관련 있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뽕나무 골목은 조선에 두 번 출병했다가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이다. 명나라 최고의 풍수지리가였던 두사충은 경상감영 자리에 처음 터를 잡은 후 지금의 앞밖걸과 계산성당 사이로 난 골목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뽕나무를 심고 길쌈을 하며 살았다는 데서 연유하는 골목이다.

약전골목의 제일교회는 동산동 대구제일교회의 옛 예배당이다. 대구·경북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구내에 1900년 대남소학교, 1906년 계성학교, 1907년 신명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의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건물 전체가 근대 고딕양식이 잘 나타난 건축물 연구사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지금은 남성로 선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회를 창립한 베어드 목사를 비롯해 종각 건립에 힘쓴 이주열 권사, 첫 세례 교인인 서자명 스토리 등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약령시 한의학 박물관은 대구 약령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딱딱하고 어려운 한의학을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구 약령시의 유래와 역사적 발전과정을 애니메이션과 입체모형(디오라마)으로 감상할 수 있다.

경상감사 임의백의 약령시 창시 스토리와 탁월한 경영마인드로 중국까지 이름을 떨친 객주 김홍조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영남대로는 염매시장과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조선시대 길을 말한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9대 간선도로 중 하나로 부산 동래포에서 한양까지 이어졌던 길이었다. 특히 영남지역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과거 길로 유명했다.

또한 이곳을 통해 조선시대의 많은 물류들이 거래되기도 했다. 옛 영남대로를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골목 곳곳에 영남대로를 형상화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종로는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종루(鐘樓)가 있던 거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종로는 대구읍성의 남문인 영남제일관에서부터 조선시대 홍살문이 있던 자리(현재의 만경관앞 네거리)를 지나 경상감영으로 이어진다.

1904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대구에 진출하면서 종로의 세를 조금씩 빼앗아 갔다. 대신 화교들의 본거지이기도 한 종로에는 요정들이 들어와 대구의 밤 문화를 지배했다.

종로는 한때 경상감영 교방의 관기였으나 달성권변 초대회장까지 오른 기생 앵무로 알려진 염농산(1860~1947)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있다. 현재 골목투어 명품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진골목의 '진'은 경상도 말로 '길다'의 뜻이다. 하지만 골목은 100m 남짓으로 짧지만 골목이 지닌 내력은 깊다. 100년을 훌쩍 넘어선다.

진골목은 초기 달성서씨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유명했다. 대구 최고의 부자였던 서병국을 비롯해 코오롱 창업자 이원만, 정치인 신도환, 금복주 창업자 김홍식도 진골목에 살았다. 지금은 그들이 살던 대저택에는 백록식당, 송정식당 등 식당들이 들어섰다. 정소아과 건물은 사료적으로, 미도다방은 추억을 간직한 자들에게 유명하다.

대구에 화교가 정착한 때는 1905년이다. 화교 경제는 광복 이후 급속도로 확장됐다.
미군정의 우대를 받아 경제력을 키우면서 6·25전쟁 때 서울과 인천의 화교들이 대거 대구로 내려오면서 세력이 커졌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화교자본에 대한 규제로 대구 화교는 급격하게 쇠퇴했다.

대구화교협회는 1929년 지어진 서양식 붉은 벽돌건물이다. 단단한 모양새가 인상적으로 80년이 넘었지만 보존상태가 좋아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화교협회 옆에는 화교소학교가 있는데 중국식 그림과 장식으로 꾸며진 것이 이채롭다.

관광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요즈음 시대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그래서 공감과 흥미의 폭을 넓히는 스토리텔링이 새로운 관광트랜드가 되고 있다.

골목 구석구석 이야기보따리가 넘치는 중구 골목투어는 관광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편집국

대경리조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 ·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경리조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통한 메타버스축제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다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이다.
관광이란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대표적인 체험 상품이자 소비활동이다.

그중에서 축제는 체험관광의 대표적 유형으로 축제에서의 체험은 소비를 통해 재미나 즐거움을 주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 기반 문화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특별한 의미와 시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의식을 의미한다.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문화현상으로, 예전에는 특별한 관습에 의해 행해지는 신성하거나 세속적인 의식이었지만 지금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제고시켜 주고, 외지인의 방문 유도를 증진시켜 지역을 알리고, 경제적 가치를 더하여 매년 정해진 일자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주최로 준비되고 개최된다.

오늘날 축제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비중은 매우 커져, 이제는 지역의 특산물을 주제로 하거나, 주요 관광지를 주무대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사회들은 지역축제를 통하여 각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경제소득까지 올리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능하게 하며, 지방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축제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전국적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947개 축제 중, 83%인 789개가 취소되었고, 2021년에는 1,004개 축제 중 635개가 취소되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에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위주의 축제로 대체되었으며 2021년 이후에는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축제가 주축을 이루었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참가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에 의사소통, 정보공유와 가상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화상회의나 원격수업, 기업설명회, 라이브 커머스,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한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갑작스레 나타난 문화는 아니고, 이전부터 웹상에서 인기가 있었던 문화였다. 온라인 이용 빈도가 높고, 자아 표현이 자유로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하나의 디지털 문화로서 자리를 이미 잡았다.

특히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때에 영남대학교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에 구축된 캠퍼스에서 온라인입학식, 생일파티, 인문학강연, 박물관 견학 등의 행사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메타버스 축제는 직접 축제 현장에 가지 못하는 축제 이용객에게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메타버스 축제는 메타버스 축제 플랫폼 구축비 5,000만원씩을 지원받아 1년 중 평균 3일~7일 정도 개최되는 축제를 위하여 축제 전후 평균 1~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운영이 되기에 비록 실질적인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축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효과가 좋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메타버스 축제는 축제의 한 방향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인 영덕군의 대게축제와 고령군 대가야축제 등은 로블록스(Roblox) 플랫폼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축제를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축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메타버스 축제의 쇠퇴

관광체험자들의 만족은 소비 체험이나 관광목적지 방문 이후 바로 발생하는 평가로 관광객들이 방문 전 기대와 체험 후를 비교한 주관적인 판단이며, 축제 참가자는 축제 체험을 통해 축제 만족을 얻었다면, 축제 재방문의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축제의 효과는 직접 방문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 축제를 통해 온라인 축제 방문객에게, 단순 홍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실제 축제 체험의 만족도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이후의 축제들은 예산상의 문제 및 비용 대비 효과가 낮기 때문에 메타버스 축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오프라인 축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메타버스 축제를 대안으로 생각하여 메타버스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축제를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메타버스 축제의 쇠퇴가 아쉽긴 하지만, 축제란 현장의 생동감이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균익 연구위원

글로벌 환율전쟁과 한국경제

2024년 9월 1일 원·달러 환율은 1,339.00원을 기록, 최근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50원 가까이 하락하며 강달러 상황이 주춤하고 있다.
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환율 하락세가 완연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의 속도가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이 원화 강세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과 금리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장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어떤 돌파구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지속된 강달러

최근 미국의 경기 활황과 중동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강달러 현상이 유례없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엔-달러 환율이 한때 160엔을 넘어서면서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엔저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긴 것은 역사상 이번을 포함하여 총 4번밖에 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그리고 현재 일시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1,300원 이상이 1년 동안 유지되는 사상 초유의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화가 지난 4월 말 1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면서 엔화 예금 잔고가 약 39% 급증했다.
지난 4월 한때 1,40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30원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달러로 인한 국가 경제적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달러 강세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러-우 전쟁, 이-팔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불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자극해 달러화 강세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 총선을 치른 프랑스와 영국의 극우 세력 돌풍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더해졌고, 중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등 경기가 부진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가오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물론 미 대선의 결과에 따른 재정과 무역정책으로 달러 강세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정세이다.

각자도생 세계의 금리정책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미 연준 통화정책과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6월 4.5%의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유럽 내 소비와 투

자를 촉진하고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로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60엔을 사수하기 위해 금리를 0.25% 높였지만 크게 반등하진 못했다. 지난 4월 160엔이 넘어가자 우리 돈으로 85조원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으며 환율방어에 나섰지만 두 달 만에 다시 160엔이 무너졌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일본은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급격히 인상하기에는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260%에 달하는 국가 부채비율도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중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수출 약세까지 이어져 코로나 이후 더딘 경제 회복세를 보인다. 결국 지난달 0.1%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주요국들은 미 연준의 행보와는 별개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치며 조금이라도 빨리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가려 하는 상황이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

고환율, 고금리, 내수 부진과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과 공공투자를 제고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각자도생의 통화정책 구축이 절실하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섬유,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로 이어진 경제 성과로 한국경제는 초고속 성장하였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2.2% 수준으로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미래먹거리(예: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의 획기적 생산성 향상과 시대에 걸맞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대중차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토요타에서 성공적으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이뤄낸 '렉서스' 사례나 온라인 DVD 비디오 대여점에서 전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이자 미국 글로벌 1위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이 된 '넷플릭스'의 사례는 혁신을 이룬 대표적 예이다.

국내 최초로 도전 혁신형 R&D 프로그램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혁신기술 창출을 위한 일환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반도체 소자,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테마를 산업부는 7년간(2024~2030) 총 671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치열한 글로벌 환율전쟁 속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의 경제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18일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였다.〕

편집국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인터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는 기관이다.

제12대 경북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시작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막을 열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지방소멸 대응,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경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경북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및 이춘우 위원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제12대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64년생, 5선)은 1992년 27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최연소 출마하였고, 1998년 33세에 제6대 최연소 경북도의원, 제7대 도의회 최연소 기획위원장, 제9대 도의회 무소속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제12대 도의회에서는 최다선 의원의 경력으로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각 지역의 대표인 도의원들과 경북도발전을 위해 앞장서 힘차게 달려오고 있다.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이사, 경북지구 JC NGO 위원장,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대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박성만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등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박의장은 경북도의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꾸준히 헌신해 왔다.

의장 박성만

그동안 펼친 주요 입법 활동으로는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Q 제12대 후반기 2년 동안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A 단언컨대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의 의회 운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한 현안사항 분석으로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의 교류협력을 정례화하겠으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의회 관련 중앙기관과 업무협약과 같은 상호교류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더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개발강화를 위해 도의회 조직개편도 실시할 예정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A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주민대표기관으로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경북도민의 행복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견제에만 너무 치우쳐 소통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불행은 모두 도민들이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대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와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Q 최다선 5선 도의원인 박의장에게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단체들이 경쟁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사회적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의 많은 현안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각종 현안에 묶여 있는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도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도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지난 7월 5일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를 출범하고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고 의정 자료를 수집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여 년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 도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민심을 적극 반영하며,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주민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경북도의회를 더욱 의회다운 의회,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도의회는 물론 경북도발전의 원동력이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전문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이춘우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운영전문위원회 위원장(70년생, 재선)은 영천시의회 3선 의원을 거친 재선 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부의장,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어 제1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임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이 입증됐다는 평가이다.

주요 입법활동으로는 ◇경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경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북도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특히 「경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의정대상', '국제자원봉사총연합회 봉사대상',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출입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에도 선정됐다.

이춘우 위원장

Q 운영위원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포부를 이야기해 본다면?

A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는 59명의 도의회 의원들이 모두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의회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고 진정성 있게 반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의회가 역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변모시킬 필요성이 있어 운영위원회 를 다음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주요 의정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항상 열린 자세로 운영위원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선택을 이끌어냄으로써 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변인 제도를 통해 의회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회와 도민 간에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언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사무처에서 진행돼 온 모든 관행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A 현재 경북도는 서민경제의 어려움,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수많은 도전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힘을 모아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면 현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는 도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원 앞에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영천시의 민원해결사 홍장군, 환경보호과 홍경아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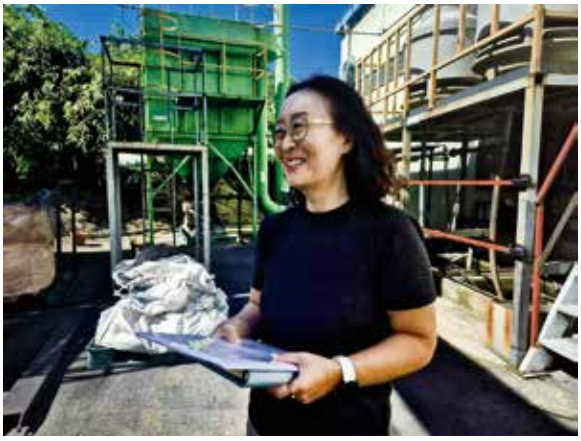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홍경아 팀장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모범이 되는 영천시청의 대표적인 공무원이기에 이번 경영저널 「칭찬합시다」에 선정되었다.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 언제부터이며 그동안 어떤 보직을 맡아왔었나?

1993년 5월 20일 지방환경직으로 임용되어 환경오염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환경 관련 각종 민원해결, 환경오염사고 대응, 폐기물사업장 인허가 및 관리,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수돗물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두루 거쳐 지금은 환경보호과 환경계획 담당으로 배출시설 인허가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첫 번째, 항상 되새기는 점은 "귀 담아 듣는 것, 경청" 입니다. 민원인들 누구나 관공서를 찾아올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주는 공무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웃으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합니다.
두 번째, "역지사지, 이해"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소음, 악취등으로 인해 들어오는 민원의 경우 내가 느끼는 것과 남이 느끼는 게 다르기에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게 공무원입니다. 사업장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 "대화와 소통"이겠죠. 대화가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음인데 우리가 하는 대화는 대부분 한 분만 이야기하죠. 저도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자 하나, 어느 순간 저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고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는거죠. 저도 아직 대화와 소통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될 때까지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매일 도전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팀장으로 환경계획업무를 수행중인데, 이에 대한 소감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을 땐 항상 걱정과 두려움, 기대가 섞인 마음이 듭니다.
특히 환경계획업무는 환경보호과의 살림을 살아가는 중요한 보직으로 처음 접하는 유해한 야생동물 관련 업무 등으로 부담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

만 며칠 밤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업무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동시에, 긴장감도 많이 느낍니다. 신규 공무원이 된 듯, 법 공부도 하고 모처럼 신선한 기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잘 따라 주니 일이 재밌기도 합니다.

다른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별명이 있는가?

신입일때는 선배공무원들이 "홍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씩씩하다면서요. 혼자서 사업장 단속도 나가고, 거친 공사 현장도 거침없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겁 없이 일을 하고 추진력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사들로부터 일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 웬만한 남성 공무원보다 낫다는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덕분에 어려운 업무도 많이 맡았고, 더불어 "민원해결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일 욕심과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업무도 재밌어해서 저에게 업무가 많이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중간관리자로 후배들이 가끔씩 우스개로 "홍엄마"라고도 합니다.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보면 꼭 참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 봐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되지 싶은데 하는 생각에, 후배들이 어려워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공직생활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

대학을 다닐 때 환경을 접하게 해 준 책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었어요. 아직도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이때부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영천시 환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금도 하고 싶은 게 금호강 생태지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1998년 환경사업소 수질관리를 담당하면서 수질환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그 때 제 논문 주제가 「하천의 정화작용」이었어요. 당시 환경사업소의 최종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하천의 정화작용이 얼마나 뛰어난 지 수질검사로 데이터화 했습니다. 생태지도가 무슨 관계냐고 물어본다면 영천시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서울의 한강처럼. 그만큼 시민들의 애정이 남다른데요. 영천시는 금호강 수질을 지키기 위해 2022년부터 16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점저감시설인 여과형시설 2기 설치하고 2025년까지 6기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깨끗해진 금호강의 주변 생태지도를 만들어 아이들의 환경교재로 활용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물고기, 곤충, 식물, 수달같은 동물, 그리고 철마다 쉬어가는 철새들까지 사계절을 다 담고 싶어요. 남아 있는 공직생활동안 차분히 준비하여 깨끗하고 맑아지는 금호강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김원현 기자

끊임없는 혁신으로 고객의 성장을 함께하는 Digital IT 서비스 파트너

SK(주) C&C 조재관 제조Digital부문장 인터뷰

본보에서는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의 대경인'코너를 진행한다. '이달의 대경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SK(주) C&C 조재관 제조Digital부문장이 선정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며, 일선 산업현장, 의료,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표하는 IT 전문기업으로서 AI, Digital, 로봇 등의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IT시스템, AI 자동화, Smart Factory 등의 사업에서 새로운 Business Model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SK(주) C&C이다. SK(주) C&C 조재관 부사장과 즐겁고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았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SK주식회사에서 C&C 제조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조재관 부사장입니다.
저는 주로 SK그룹의 제조멤버사와 대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IT 사업 및 Digital 전환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제조업체의 ERP, SCM, MES와 같은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으며, AI/자동화 등 Digital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mart Factory 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Business Mode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쌍용그룹에서 기획실, HR, 정보전략 조직을 거치면서 기업경영관리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여기에서 IT 업무를 추진하면서 I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T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IT 전문회사인 SK(주) C&C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Q SK㈜ C&C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주요 관심 분야나 사업 부문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요즘 사업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Smart Factory 사업 부문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환경의 활성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장 운영의 무인자동화(Full Automation)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고, 국내 또는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엔지니어는 물론이고 오퍼레이터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서 Smart Factory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처럼 컨베이어벨트, 크레인 방식의 창고관리와 같은 자동화가 아니라 AI, Digital, 로봇 등의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된 공장을 지향하는 Smart Factory를 말합니다.
이러한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ERP(경영관리시스템) 및 MES(생산관리시스템)와 같은 IT 영역과 실제 생산장비와 설비가 연계된 생산/설비 제어 영역에 대한 융합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정보

화 중심의 IT기술을 넘어서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와 지능화(자율제어) 단계로 발전하고 Smart Factory 전체 Value Chain이 통합된 구조로 제조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최근 국제/국내 산업박람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보화 기술에 집중하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등의 글로벌 IT 기업이 제조 장비/설비 제어와 H/W 영역에 대해 진출하고 있고, 장비/설비 제어 및 H/W 제작업체와의 합종연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 SK(주) C&C 부사장으로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중점적 추진 방향이 있다면?

A 저는 MIS, ERP와 같은 경영관리 IT 영역부터 시작하여 제조 IT 영역 등 다양한 IT 영역을 경험하였으며, 국내 및 글로벌 IT 환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Digital 전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표준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제조 현장이 자동화와 지능화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러한 표준화된 제조솔루션을 가져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기존의 인력 의존적인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완성된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 장비, 품질, 공정물류 등의 제조 영역에서 표준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제조업체의 IT수준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기관, 학교, 창업지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나, 앞으로 중견/중소 제작업체의 발전에 IT와 Digital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수년 전부터 창원, 부산 등의 스마트 산단에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스마트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practice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는 너무 다양한 요구사항과 특성을 고집하여 각자가 모두 다른 운영체계와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통일시키고 각자의 성공적인 practice를 서로 공유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만든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Smart Factory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사업 목표를 위해 저는 통합 제조 플랫폼을 만들고 확산시키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고, 저의 노력이 제조업체의 경쟁력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편집국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술(IT) 솔루션(Solution) 전문기업(COMPANY)

"ITSCO 아이티스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등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으며, 일선 산업현장, 의료, 교육, 금융, 스포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IT 서비스분야 최고의 솔루션 전문기업

인간존중과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경영비전을 가지고 IT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모여 선도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MES, POP, 자주검사관리시스템 등 특화 솔루션을 비롯한 기업 정보화 솔루션 개발,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는 최고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민우 대표가 경영하는 아이티스코이다.

ITSCO는 IT SOLUTION COMPANY의 약자로 최고의 IT솔루션 공급자가 되겠다는 다짐과 의지가 표현된 기업명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24 3층에 소재하는데, 2016년 3월 회사를 설립하고, 2019년 1월 현재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중국 칭다오시에 중국지사도 운영 중이다.

혁신적인 성과 창출과 인증 기업으로 승승장구 성장·발전

ITSCO는 회사설립 후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도 혁신적인 성과를 내며 승승장구 성장해 왔다.

2017년 IMB 스마트팩토리공급사로 선정되고, 민관합동스마트지원사업 POOL 등록되었다.
2017년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계약과 '오픈마켓의 통합 물류/배송 플랫폼 시스템 및 방법'등으로 여러 건의 특허출원과 등록을 달성하였다.

2018년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등의 회원사로 등록되었고,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대표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제19회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벤처기업특별상(대구상의회장상), 제11회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고, Optisco-ERP GS인증 1등급획득, 고용노동부 2020 청년친화강소기업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Optisco-MES GS인증 1등급과 ISO 9001/14001 품질경영/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하였고, 2021년 우수 이노비즈 기업 포상 대구광역시장 표창 등 여러 인증과 수상의 실적을 이루어 내며 회사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ITSCO의 핵심사업분야

ITSCO의 핵심사업분야는 스마트공장&MES 구축, 특화솔루션, IT서비스로 대표되며, 다양한 방법,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R&D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목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개발을 위해 스마트공장 통합기술을 적용한다.
이는 스마트 센서&IoT 기술로 생산설비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빅데이터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수직적 통합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및 제조프로세스분석 등의 수평적 통합을 유기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합(Integration) 및 연결(Connection) 관점에서 다양한 ICT기술 및 핵심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는 자재입고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의 전체공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산의 결과에 따른 제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의 구현제품인 OPTISCO-MES로 미국 MESA에서 정의한 MES 11대 기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제조현장의 실정에 맞추어 특화시킨 최적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제공한다.

ITSCOS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정보와 업무프로세스를 공유하는 ERP/그룹웨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Data Integrity & 생산성향상 및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현장관리와 업무분석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주요 작업 공정의 초물, 중물, 종물의 검사항목을 샘플링 측정하여 검사 결과 데이터를 검토, 확인, 저장하는 초·중·종품 관리시스템, ◇금형 관리시스템, ◇창고 관리시스템, ◇바코드 물류관리, ◇통합 B2B 시스템 등에서도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한다.
IT서비스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정보화 자문 컨설팅, ◇SW 위탁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비싼 서버를 구매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아이티스코의 클라우드 서비스 Optisco MES cloud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IT서비스로 사내 자원소비를 최소화시켜 준다.
24HR콜센터 지원, 정기방문 지원, 유지보수 협업체

계로 고객사의 구축 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유지보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로 대한민국 최고의 IT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ITSCO는 회사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실시간 공정관리 및 제조현장 정보화 분야의 기술혁신과 이를 응용한 시스템 기술을 축적해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인 사이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인공지능, 머신러닝/딥러닝 등을 응용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기술 및 기업용 솔루션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ITSCO은 창의(Creative), 도전(Challenge), 협업(Collaboration)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아 기술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 회사, 직원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대표는 "수많은 현장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ITSCO는 기존의 IT/SI 기업들이 당연히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고객의 문제, 애로와 고충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ITSCO는 고객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기술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기업이 되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비전과 각오를 당당히 밝혔다.

편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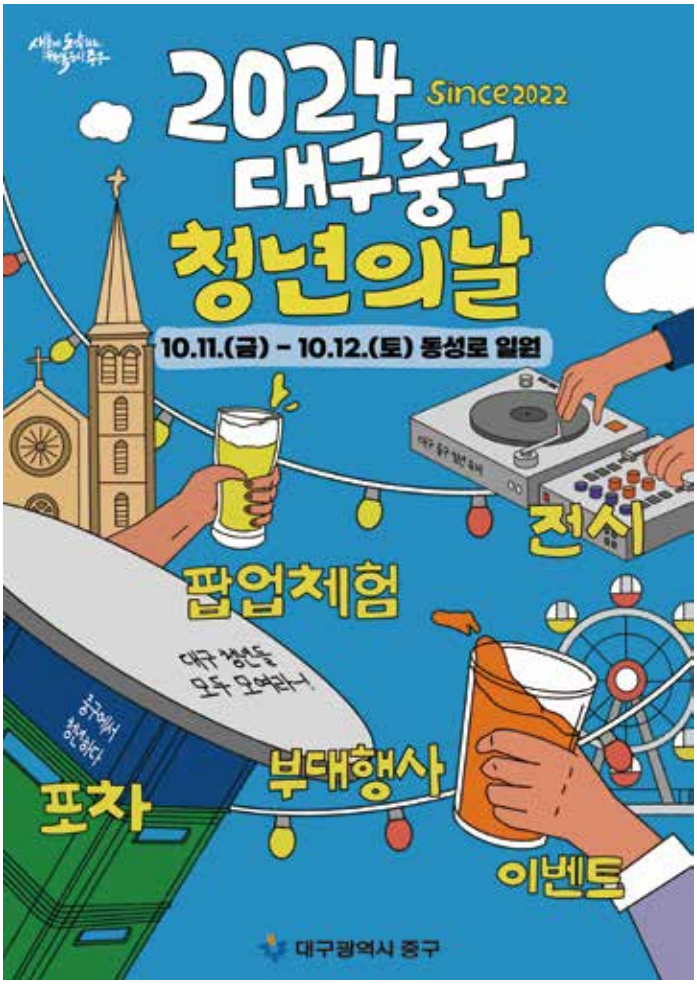
2024 대구 중구 청년의 날

대구 중구는 2022년부터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및 협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동성로에 지역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작년 행사는 예년에 팝업존에서는 20개 업체가 참여해 △빈티지 의류 △소품샵 △커스텀 티셔츠 제작 △퍼스널컬러 진단 등 다채로운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먹거리존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동 일대 감성에 맞춘 '감성 포차'를 꾸며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 '밍키태', '안녕, 코스모스', '루뜨49'의 버스킹 공연을 펼쳐 행사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올해 대구시 중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동성로 일대(올리브영 대구동성로점~동성로 68-1)에서 "2024 대구 중구 청년의날 "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 내용으로는, 전시존에서는 지역업체 개인간의 전시, 대형 포토존이 설치 될 예정이며, 팝업존에는 20개 업체가 참여해 빈티지 의류, 소품샵, 커스텀 티셔츠 제작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퍼스널컬러 진단, 인생네컷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먹거리존에서는 눈을 즐겁게 하고 허기를 채울 맥주 시음 행사와 곱창, 닭강정, 츄러스 등으로 구성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키덜트존에서는 각 구간별로 다른 컨셉의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청년들의 놀이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버스킹 공연, 거리 노래방, 초청 공연 등 행사를 무르익게 해줄 무대도 준비 되어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충분히 즐기고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마음에 와닿는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말했다.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대구 대표 가을축제 개막
8개 축제로 구성, 각종 할인 이벤트도

대구 대표 통합축제 '2024 판타지아대구페스타'가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판대페 시즌5, 사운드 유니버스 다이브'를 주제로 대구 전역에서 열린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대구종합예술제, △대구포크페스티벌 △대구국제음악제 △대구콘텐츠페어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 △동성로청년버스킹 등 총 8개 축제로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우주 행성을 탐험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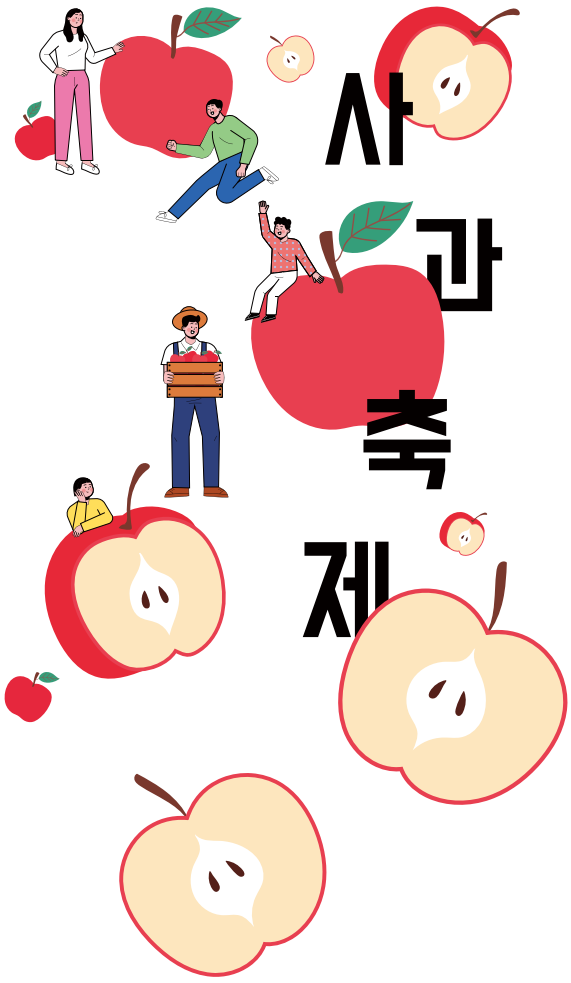
먼저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다음달 4일부터 11월 8일까지 36일 동안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대구 전역에서 열린다. 오페라 '장미의 기사' 등 5개 메인 오페라와 각종 특별공연 등이 준비됐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도 다음달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구종합예술제'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대구포크페스티벌'도 10월 둘째주까지 각 주말 동안 김광석거리 야외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대구국제음악제'는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과 챔버홀에서 지역 및 해외 음악가,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올해 3회를 맞는 '대구콘텐츠페어'는 다음달 11, 12일 엑스코 서관 1층에서 열린다. 대구콘텐츠페어는 게임과 웹툰, 캐릭터 등 국내 최대 콘텐츠 축제로, 유명 웹툰 작가와 크리에이터 등을 초청해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와 '동성로 청년버스킹'도 축제 기간 중 대명공연거리와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다.

진흥원은 이번 가을을 대구여행주간으로 정하고, 이월드와 스파크랜드, 대구아쿠아리움 등 주요 관광지의 이용권 40~50% 할인 쿠폰을 현장에서 배부하고, 공연(대구국제오페라축제, 월드오케스트라) 및 미술관(대구미술관, 대구간송미술관) 관람객들은 상호 30% 티켓 할인도 제공한다.

2024 문경 사과축제



'2024년 문경사과축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7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는 문경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문경사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축제 개최 시기, 추진 방향 등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추진위는 올해 축제를 체험·참여·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또 이번 축제 기간 중 TV프로그램 생방송 진행 등 여러 방송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해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전국 주산지 1위인 국가대표 명품 문경감홍사과를 주제로 한 이벤트 행사 및 홍보·판매행사를 진행해 문경감홍사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문경 사과를 구입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문경사과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는 지속적으로 축제 관련 협의를 진행해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풍성한 축제로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연구원

대구광역시 중구

DAEGU JUNG GU 대구중구 근대로의 여행

근대골목 쓰담투어 (플로킹)

코 스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1~5코스

투어운영
- 정기투어 : 매주 수요일 15:00 / 매주 토요일 10:30
- 수시투어 : 7명 이상 신청 시, 시간·코스 자율 운영
- 투어인원 : 7명~13명 정도 1팀 운영

※1365자원보상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원봉사등록 및 실적확인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대구중구청 골목투어 홈페이지 (https://www.jung.daegu.kr/new/culture/pages/main/)
- 전화신청 : 대구중구청 관광과(☎053-661-2625)

※플로킹(Ploking)이란? : 스웨덴어'Ploka upp(줍다)'와 영어'Walking(걷기)'를 합성한 신조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1894년 뉴질랜드 국가에서 도입되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면서 시급 462.5원에서 2024년 현재 시급 9,860원, 2025년도는 1만원 시대(10,030원/시급)가 도래한다.

우리와 일본, 실제 최저임금 4~5년전부터 앞질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 시키면 실제 최저임금이 4~5년 전부터 이미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으로, 일본 동경 기준 시급 1,072엔으로 환산하면 9,745원으로 시급 115원이 우리나라가 많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 시키면 더 많은 차이가 나며, 2025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천원이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외국근로자 등 적용

주휴수당은 노동시장에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 즉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5일 근무,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최근 주5일 근무가 정착된 현 노동시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운영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많은 부담 요인이 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최저임금제도를 인상하면서 더욱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주휴수당에 대한 존폐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달라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 주휴수당 폐지

선진국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국가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터키,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등 임금수준과 생산성낮은 국가들이 법으로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주휴수당을 일찍이 도입하였지만, 노동환경 변화와 중소기업들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면서 1990년도에 주휴수당을 폐지하였다.

이가윤 기자

www.dghrd.co.kr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리더 역량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등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및 프로그램

- AI·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경영평가사 자격수여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학점인증제 및 교육훈련
- 펀(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그루타워 502호
(대흥동 873-1)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가을에도 신천물놀이장으로, 가을철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가을맞이 계절꽃 전시 및 시민쉼터 공간으로 변모

대구광역시는 가을을 맞아 여름철 시민들의 시원한 휴식처였던 신천물놀이장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물놀이장은 지난 7월 10일 개장 이후 47일간 42,000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찾은 도심 속 피서지였으며, 이후 정비를 거쳐 9월 13일(금)부터 11월 17일(일)까지 66일간 가을철 테마로 재구성해 시민들을 위한 가을쉼터로 변모한다.

신천물놀이장의 ◇가족풀은 '계절꽃 정원'으로 ◇유수풀은 '야간 포토존'으로 ◇파도풀은 '파도소리 쉼터' 등으로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가득한 「계절꽃 정원」
가족풀에 평탄화 시설을 설치 후 금잔화 등 가을꽃 6,000본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가득한 공간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10월 국화 만개시기에는 꽃조형물과 국화 3,200여본을 전시해, 국화향 가득한 공간으로 계절꽃 정원을 만든다.

◇ 경관조명에서 사진을 남기는 「야간 포토존」
유수풀 공간은 조명의자, 낙하조명 등 조명시설을 설치해, 하천 내 이색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야간에도 신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머물고 쉴 수 있는 야간 포토존으로 조성한다.

◇ 하천에서 느끼는 바다감성과 영화가 있는 「파도소리 쉼터」
파도풀은 스피커를 통해 파도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도심 속 해변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파도풀 벽면을 모든 연령층이 관람 가능한 영화상영의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등 파도소리 쉼터로 조성한다. 특히, 10월 14일(월)부터 11월 17일(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시네마데이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가을철 운영 이후에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2월 초까지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 및 눈놀이터 등으로 조성하여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레저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신천물놀이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장한 신천물놀이장은 도심 하천의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장에 이어 사계절 테마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도심속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천물놀이장

동성로 도심캠퍼스,
2학기 개강 맞아 교과과정 확대 운영

도심캠퍼스, 2학기 교과과정 확대해 13개 대학·15개 과제·56개 강의 운영

도심캠퍼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 「도심캠퍼스 1호관」 조성을 통해 지역 대학에 도심 속 강의실을 제공하여 지난 1학기와 여름방학 동안 수업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2학기 개강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과과정을 확대해 운영한다.

「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동성로 도심 일대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지역 13개 대학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도심캠퍼스 착수 선포식을 가졌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환경정비를 시작해 준비기간을 거쳐 3월 6일(수) 도심캠퍼스 1호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도심 속 정형화된 공간이 아닌 통합 강의실과 현장 체험활동 중심의 창의적 교육 공간으로 새로 거듭나도록 대구시와 대학이 함께 뜻을 모아 도심캠퍼스 1호관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심캠퍼스 1호관은 적산가옥과 1950년대 한옥 구조 건물로, 대지면적이 442.6m², 연면적이 286.8m²인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심캠퍼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1호관과 인근 지역 대학협력센터 공간을 활용해 지난 1학기와 여름방학 동안 지역 13개 대학의 13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50개의 세부강의를 운영하여 약 3,700여 명의 지역 청소년, 대학생 등이 수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2학기에는 대구한의대학교의 ▲메디푸드 HMR활용 디저트카페 운영실무, ▲토탈뷰티 프로젝트 실무, 수성대학교의 ▲트렌드뷰티 과정(스페셜네일), ▲트렌드뷰티 과정(디자인펌) 등 총 4개의 교과과목을 신규로 확충해 내실 있고 실효성 높은 강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리고 하반기의 원활한 강의 운영과 향후 지역대학의 증가하는 도심 속 강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도심 속 「도심캠퍼스 2호관」으로 10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도심캠퍼스가 지역 내 대학 통합캠퍼스로서 역할을 다하여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간 융합과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도심캠퍼스 2호관을 조속히 개관해 동성로가 청년들의 청춘의 거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나선다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 수실, 약초류 등) 채취 행위는 범죄!! -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 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하고,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경영 전문가 '경영평가사' 자격 취득 시험 개최

대경인재개발원, 제 2회 경영평가사 자격시험 개최

경영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영평가사 민간자격시험이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 2회차가 진행되었다.

대경인재개발원은, 지난 8월 30일~31일로 양일간, 제 2회 경영평가사 자격 취득 시험을 개최하였다. 경영평가사는 공기업, 민간 기업 등 경영 기획, 관리, 평가, 솔루션 제공을 전문으로 담당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영전문가 양성하는 자격시험이다.

대경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 경영평가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대경인재개발원은 대구· 경북 대표 글로벌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하고, 행정, 사회, 경제, 경영, 환경분야 등 각종 언론 및 시장조사, 학술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다.

경영평가사 자격증 취득 시험은 지난 2023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등록번호: 제 2023-004860호) 경영평가사 자격시험이란, 기업의 운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등 경영관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제표 분석 및 PDCA 등을 토대로 ESG 정보 공시, 매년 달라지는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기준 등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경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PDCA= 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개선)] 경영평가사 자격증은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의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와 현장 중심을 기반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제2회 시험은 지난 8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양일간, 대경인재개발원 리조트에서 열렸다.

경영평가사 자격 응시는 경영 분야에서 몸 담고 있는 현직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등을 포함하여 연령, 직업 유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비롯하여 정부 및 기업의 신규 사업 계획 및 타당성 조사, 각 분야별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평가사 교육 과정은 실제 수행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용역을 바탕으로 운영하나 기관 및 단체의 요청이 있다면 자격위원회 회의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2024년도 경영평가사 3차 시험은 오는 11월 8일(금)에 진행 예정에 있으며, 상세 내용은 대경인재개발원 사이트 내 시험 공고를 확인 하거나, 또는 유선전화로 문의 할수 있다. (교육문의☎ 053-766-1368)

신영민 기자

■ 연구 우수사례

경로당 운영실태분석 연구용역

1. 이슈의 배경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로당의 역할이 커졌으나,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간의 지원 격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 및 미등록경로당의 운영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경로당은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을 의미하는 반면, 미등록경로당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곳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1개 마을 1개 경로당 설치 기준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되는 경로당은 지역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경로당 운영 현황과 지원 체계

각 지자체는 등록경로당을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경로당에는 일정한 지원금 및 운영비가 배정된다.

미등록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부나 회원들의 회비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로당은 정부의 정책이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등록경로당과 차등 지원함으로써 등록경로당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3. 지자체별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

지자체별로 경로당 활성화 정책의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은 경로당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체들은 경로당의 역할을 단순한 노인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중요한 복지 허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4. 경로당 운영실태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자료 마련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경로당 운영실태분석 과업 수행을 통해서 지자체들의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에 기여한다.

김용우 연구위원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실무 교육"

경영 평가사1급 2024 자격시험!

11월 8일(금) 시험공고!

경영 실무자 필수 / 보고서 평가 등급 "S" 받기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경영 담당자

과목		대상자	일정
ESG와 지속가능경영	조직 관리와 리더쉽	경영 평가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	홈페이지 참조 및 세부 사항은 전화문의
경영평가 방법론	회계 세무의 이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영 실적 보고서 관련 담당자	대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dghrd.co.kr
인적자원 관리론	경영실적 보고서 실무	경영 평가 위수탁 용역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자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격명 : 경영평가사1급
- 등록번호 : 제2023-004860호
- 자격발급기관 : 주식회사 대경인재개발원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문 의 ☎053-766-1368

대경인재개발원

대경인재개발원
블로그 바로가기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쪽 끝에서의 내 생애 가장 멋진 하루

동해 푸른 바다 위
가장 먼저 태양이 뜨는 곳,
넓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가
마음을 쓸어내리고

내딛는 발걸음 따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시간의 기억이 흐르는 독도

반짝이는 별을 지붕삼은
고요하고 멋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동쪽 섬, 독도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